

확 바뀐 복달임 트렌드...몸 보신 대신 간편식

보양식으로 몸 보신을 하던 여름철 '복달임'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복날(초복·중복·말복)에 개고기를 비롯해 고열량·고칼로리 음식을 먹던 복달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복달임의 대표 음식인 보신탕(개고기)은 찾기가 쉽지 않고, 삼계탕은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점차 염소나 오리고기, 장어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젊은 층은 고칼로리 위주의 복달임 음식들을 기피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감염 우려로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배달 등을 통한 간편 보양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 인해 초복(7월16일)을 하루 앞둔 15일, 각종 보양식 음식점들은 "예년에 비해 복달임 예약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복달임 대표음식들의 약세=복날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인 보신탕과 삼계탕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예년 같으면 복날 일주일 전후로 예약이 꽉차 밀려드는 손님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곳들이지만 복달임 음식에 대한 세태가 바뀌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표음식 보신탕·삼계탕 약세

오리고기·장어 등으로 대체

젊은층 복달임 음식 기피 문화도

코로나 영향 배달 간편식 선호

반려동물 1000만시대,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논쟁이 매년 지속되면서 자칫 보신탕을 권하는 것이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추세 탓에 광주시에서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10여 년전 56곳에서 올해 17곳으로 70% 가량 줄었다.

광주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어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4-5년 전 예년에 비해 보신탕가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말바우시장에서 개고기를 유통하는 업체 관계자는 "매년 개고기를 찾는 손님은 줄고 있다. 3년 전에만 해도 복날 전후로 5마리 정도는 팔렸지만 올해는 한마리도 다 팔리지 않았다"면서 "과거 수술환자들이 몸 보신을 위해 찾던 것도 이제는 옛말

이다"고 말했다. 약세 속에서도 광주·전남의 유명 보신탕 집은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

담양의 유명 보신탕집 관계자는 "매년 단골손님들의 예약이 꾸준히 판매감소는 없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이 40%도 안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개고기의 약세를 틈타 보양식 1위로 우뚝 선 삼계탕도 최근 도전을 받고 있다. 젊은층들이 탕보다는 치킨을 더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염소나 오리고기, 장어 등의 다른 고단백 보양 음식을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식문화가 발달하고 다른 음식들의 보양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대체식품을 찾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계기로 무한 변신하는 보양식=매년 초복이면 점심시간 삼계탕 가게에 길게 늘어난 직장인들의 줄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며 비대면으로 집에서 보양식을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6일 이들 매장에서의 판매된

간편 보양식의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1% 늘었다. 간편 보양식은 집에서 대워서 먹기만 하는 방식으로 삼계탕을 비롯해 백숙, 추어탕, 사골곰탕, 훈제오리·주꾸미 볶음 도시락 등이다. 또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보양식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몸매와 건강을 생각하는 복달임 변화도 생기고 있다. 육류중심의 복달임 음식을 다량 섭취할 경우 많은 지방섭취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고, 비만을 야기하는 등 성인병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어트와 몸매관리를 위해서 보양식으로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전통 복달임 음식 대신 시원한 빙수류나 과일류로 복날을 보내는 현상도 눈에 띈다.

광주시 동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40)씨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부서에서도 복날 회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초복에는 배달 앱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삼계탕을 배달해 먹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포스코교육재단, 광양제철고 일반고 전환키로

내달 교육청·교육부 동의 절차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자율형사립고 3곳 중 하나인 광양제철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

15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이사회 회의를 열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재단은 다음달 중순까지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동의를 받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광양제철고는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개

선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재단은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은 포스코가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을 지속해서 줄이면서 이미 예고됐다. 포스코의 재단 출연금은 2012년 385억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18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올해는 120억원, 내년에는 70억원으로 지속해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 자사고와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도 고려했다는 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8월 3~29일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광주시교육청이 다음 달 3일부터 29일까지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상담실에서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을 한다.

상담은 사전 신청한 고3 학생과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30분(오후 6시 30분~10시) 동안 1인 1회, 1회당 40분씩 실시된다.

상담 마지막 날인 29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학교밖 청소년과 졸업생만 상담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상담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학교별 상담 날짜를 지정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상담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선착순이다.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jinhak.gen.go.kr/) 메인 화면의 '수시 집중 상담'을 클릭 후 학교별 지정된 상담 날짜를 확인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부영이 안심타운, 정부 선정 '혁신 챔피언'

광주 남구가 범죄 등 긴급상황 때 주변의 편의점 등으로 피한 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 '부영이 안심타운' 사업이 정부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구는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영이 안심타운'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남구는 범죄 노출 상황에서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의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

남구가 선보인 사업은 서울 광진구와

경남 김해시에 확대 보급된다.

부영이 안심타운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게 전화로 '112'를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5년 남구 분선1동 30여개의 가게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16개 동 166곳으로 확대됐다.

부영이 가게는 주로 편의점과 식당, 마트 등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게들로 지정됐다. 또 해당 가게에는 부영이 가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서구, 비대면 치매교실 '뇌청춘 홈스쿨링' 모집

광주 서구가 가정 내에서도 치매예방 인지활동이 가능한 '뇌청춘 홈스쿨링'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이번 홈스쿨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예방 교육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치매예방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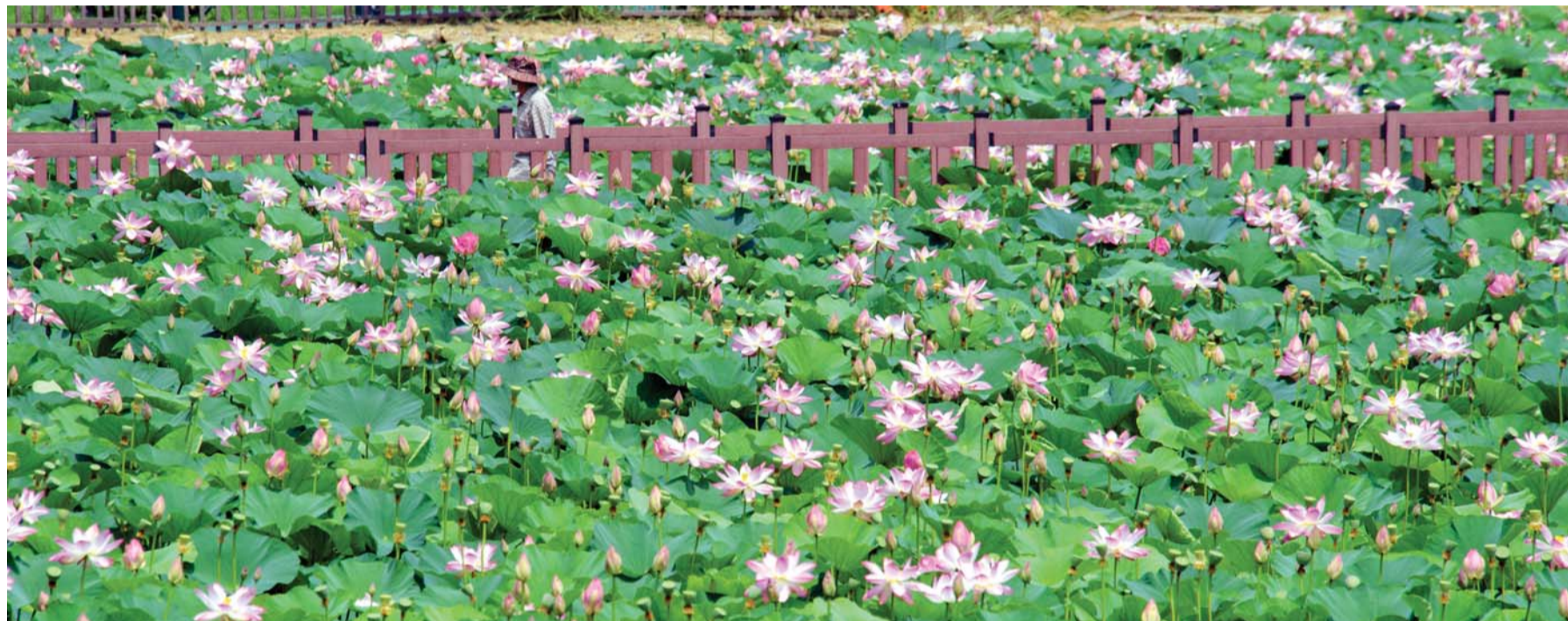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존 진행됐던 대면 프로그램인 치매예방교실을 인지재활 학습지와 스티커북, 모종지트 등을 활용한 비대면

학습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홈스쿨링 참여자는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과 학습교구를 활용해 기억력 훈련, 운동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 및 우울감 감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홈스쿨링은 오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까지 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맛비가 속 연분홍 연꽃 향연 연일 장맛비가 오락가락한 가운데 1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제가 분홍빛 연꽃과 초록의 연잎으로 뒤덮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지스트 함병승 교수, 새로운 절대 보안 암호통신 기술 개발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함병승 교수가 양자 암호키 분배 기술을 대체할 수 있고, 전송 거리에 상관없이 기존 광통신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새로운 절대보안 암호통신 프로토타입을 제시해 보안 분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필수적인 양자화된 신호, 양자채널, 양자 검출기의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물론 전통적 고전 암호통신 방법과 호환되는 수준에서 무조건적 정보통신 보안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양자암호키 생성·교환 기술에 기초한 기존 양자암호는 물론 공개

키 방식 등 전통적 고전암호를 대체하는 무조건적 보안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암호통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존 고전암호 통신처럼 일반 채널을 통신 선로로 하고 고전적 신호를 열쇠로 사용하되, 양자암호와 같이 절대 보안을 담보하므로 그 급격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양자암호통신에서는 절대보안 원리가 양자화된 신호의 복제불가원리에 있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절대 보안을 신호의 양자화가 아닌 채널의 양자화에서 확보했고, 키분배 과정이 광메모리 원리와 동일하게 확정적이다. 또한 암호키 생성·교환 속도가 광통신 데이터 전송속도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인류의 숙원사업인 정보의 직접 절대 보안 통신을 구현하는 데 적용 가능하다. /채희종 기자 chae@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